

광주 복합쇼핑몰 광천권에 도시철도-BRT 함께 달린다

(간선급행버스)

2027년 BRT 남북구간·2032년 동서 잇는 지하철 '상무광천선' 완성
사업비 7500억원은 교통유발자 신세계·현대백·광천재개발이 부담
공중 보행로·그린로드 조성...대중교통 중심의 '대·자·보' 도시 구축

광주시에 국내 최대 복합쇼핑몰과 5000세대 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함께 진행되는 이른바 '광주 광천권역'에 도시철도(지하철)와 BRT(간선급행버스)를 동서와 남북축으로 교차해 동시 투입하기로 했다. 최단기 완공 목표는 BRT 2027년, 도시철도 2032년이다.

광주시는 특히 확장·신축하는 종합버스터미널과 신세계 백화점, '더현대 광주'를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에코브릿지 등 입체형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동차 운행이 불편한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시범모델을 구현해 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복합쇼핑몰 개장 시기가 2027년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차도 3차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BRT만 우선 운행한다는 점을 들어 개장과 동시에 '교통 지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11일 시청 시민홀에서 '광천권역 대·자·보 특별 교통 대책'을 브리핑하고, 도시철도와 BRT 동시 건설 계획 등을 밝혔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강기정 시장은 광천권역 특별 교통대책으로 도시철도 상무 광천선과 간선급행버스(BRT) 개통, 도심 급행버스-구도심 연결 상생 버스 운행, 광주전 상부 에코브릿지와 광천 그린로드 조성, 막힌 곳은 뚫고 끊어진 곳은 연결하는 도로 정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광천권역 교통대책 사업은 교통유발자 부담원칙에 따라 민간 개발자들이 낸 공공기여금 등으로 모두 충당하며, 광주시 예산은 투입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추진하는 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우선 상무 광천선 계획 노선은 도시철도 1·2호선과 광주~나주 광역철도 환승역인 상무역에서 출발해 기아자동차, 종합버스터미널을 거쳐 더현대 광주 등 개발 대상지인 방직공장터, 신안동을 지나 광주역 후문으로 연결되는 7.78km 구간이다.

시는 특히 지상에 복공판 등을 설치하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방식과 달리 지하 터널(NATM) 공법으로 추진해 시민 불편과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연말까지 주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내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철



도망 구축계획 승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5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부에 '상무 광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라고 지시한 점을 들어 사업 추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무 광천선이 동서를 연결한다면, BRT는 도시철도 수준의 신속성, 정시성과 대량 수송 능력으로 남북 수송을 책임지게 된다.

BRT는 '제1차 국가 BRT 종합계획' (2021~2030)에 반영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운광장~광천사거리~광주회화병원 구간을 운행한다. 시는 동운고가에서 광주체고 앞 도로가 좁다는 지적에 따라 용봉·매곡지구, 광주공고 방면으로 일부 노선을 변경하고, 더현대 광주 개장 전인 2027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개설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복합쇼핑몰을 찾아오는 외지인이 양동시장, 총장로, 금남로, 동명동 등 구도심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상생 버스'를 운행하고, 복합쇼핑몰 등 광천권역을 도보로 오갈 수 있게 기아차 사거리에서 방직공장터까지 1.2km 구간을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조성한다. <2면으로 계속>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TV 토론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두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경제·이민·낙태 정책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

미국 대선 TV토론...시청자 63% "해리스가 잘했다"

CNN 여론조사... 바이든과 반대
6월 토론엔 67%가 "트럼프 승리"

10일(현지시간) 펼쳐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 성적표를 두고 3분의 2에 가까운 시청자는 해리스 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10면>

미 CNN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SSRS에 의뢰,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날 토론을 지켜본 등록 유권자의 63%는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했다는 응답자는 37%였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토론했던 지난 6월 27일의 결과와 대비되는 것이다. 당시엔 토론을 지켜본 유권자의 67%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잘했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더 잘했다는 응답률은 33%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TV 토론 참패에 따른 후폭풍으로 결국 후보직을 내려놨다.

토론 후 해리스 부통령에게 우호적인 유권자도 늘었다. 이날 토론을 지켜본 등록 유권자의 45%는 해리스 부통령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부정적 평가는 44%였다. 토론 전 같은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39%였던 것에 비하면 6%포인트 올랐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토론 후 응답자의 39%가 그에게 우호적이라고 답했고, 비우호적이라는 답은 51%였다. 토론 전 수치와 비슷하다.

6월 토론 당시와 비교해 두 후보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을 어느 정도 확신한다는 응답자는 각각 54%였다. 응답자 36%는 트럼프 전 대통령, 32%는 해리스 부통령을 더 신뢰한다고 각각 답했다. 지난 6월 토론 후엔 시청자의 14%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에 신뢰를 표명했다.

이번 조사는 토론 후 문자메시지를 통한 조사에 동의한 유권자 605명을 사전 모집해 실시했다. 오차범위는 ±5.3%이다. /연합뉴스

불황에 푹 빠진 온정...복지시설 '찬바람' ▶6면

캡틴 손흥민 1골 2도움 오만에 3-1 승리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승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더 좋은 내일
2024 전남 동부권
일자리 박람회

2024. 9. 27.(금) 14:00 ~ 17:00

광양공설운동장실내체육관
[광양시 봉강면 매천로 695-20]

홈페이지 전남일자리통합정보망 job.jeonnam.go.kr
문의 전남일자리종합센터 061-750-7700

전라남도 광양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전남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지방보훈청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